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여대생의 외모관리 경험

김 정 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은 시대적 기준에 따라 본인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감을 얻기 위해 외모관리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외모는 사회·심리적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현대의학기술은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의 부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미적 치료분야에서도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2011년 국제미용성형수술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국내의 미용성형 외과수술은 77만건으로 전세계 8위 및 인구대비 1위에 해당하였으며, 비외과적 피부레이저 기술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ns [ISAP], 2013). 이는 개인중심의 서구문화보다는 공동체에서의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성인 여성의 의료기관 이용은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외모향상을 위한 치아교정, 시력교정 및 미용성형술 등의 치료영역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ISAP, 2013).

여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선행문헌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은 다양하지만 연령, 학력, 경제수준이 주된 영향요인이었고, 외모관리의 만족감은 자존감과 직결되었다(Kim & Lee, 2012). 특히, 성인초기 여성에서는 다른 연령층보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정적인 상관도가 높아(Park & Son, 2009),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의 기준에 따르려는 경향이 강했다(Park & Chung, 2013).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외모지향성 및 신체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Yoo, 2013). 또한 Lim (2004)은 뛰어난 외모를 지닌 여성이 결혼과 취업에서 유리하고, 여성은 외모 차별경험이나 사회적 통념에 동조하는 경향으로 미용성형이 촉진된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특히, 성인초기의 대인관계는 자아개념 형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형성의 관련요인으로 파악되었다(Kim, 2012). 특히 성인초기인 여대생은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처하게 되었으며, 교과과정에서도 그룹토론이나 실습 등 다양한 교수방법에 처하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대인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downey@pknu.ac.kr)

투고일: 2014년 6월 21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3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Jeong-Soo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599-1 Daeyeon 3-dong, Nam-gu, Busan, 608-737

Tel: 82-51-629-5784 Fax: 82-51-629-5789 E-mail: downey@pknu.ac.kr

관계 역량이 요구되었으며(Lee & Park, 2013), 대인관계형성의 주요변수는 외모스트레스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다(Son, Choi, & Song, 2010). 또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저하되었다(Lee & Kim, 2012). 현대인들은 각기 다른 입장과 처지에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들의 대인관계 형성은 사회심리적 건강에 주요영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외모관리인 심미적 치료(시력교정, 치아교정, 미용성형)는 청소년기이후 성인초기에 증가되는 추세이며,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매개체로 인식되어 국내외적으로 외모관리의 보편적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었다(Litner, Rotenberg, Dennis, & Adamson, 2008; Aquino, Haddad, & Ferreira, 2013). 현대사회에서 심미적 치료가 대중화되어 발전되고 있지만, 여성의 외모관리를 유발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여성인 여대생의 사회심리적 상황에서 외모관리의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이해를 하고자 심미적 치료의 경험내용과 그 경험적 의미를 밝혀,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심미적 치료의 범위는 전문병원에서 시술한 의학적 시술로 라섹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쌍꺼풀 성형술, 레이저 피부미용술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이 외모관리를 위해 시도하는 심미적 치료의 체험을 중심으로 여대생 스스로 심미적 치료를 선택하고 시도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근거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외모관리의 기본적 사회심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의 외모관리 경험과정의 실체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심미적 치료의 외모관리에 대한 경험과정을 밝힘으로써 현대사회에 만연화된 심미적 치료를 여대생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인 및 사회적 인식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여, 궁극적인 자아개발이 무엇인지 숙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적 접근을 적용하여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질적연구설계를 사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치아교정, 라섹 시력교정술,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일개 대학교에서 연구수락을 받은 후, 본 연구주제에 해당되는 여대생 중 자발적으로 외모관리를 위한 치료경험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면담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지점까지 자료수집을 한 결과, 총 7명이 선정되었다.

3. 자료 수집

1) 이론적 표본추출방법

반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으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의미있는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차이의 변인에 따른 후속질문을 이어나가는 목적적 표본추출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의 예로서, 본 연구의 범주인 '외모 비교로 새로운 이미지를 고려함'의 속성은 '주변인의 치료성공 수준'이었으며, '주변인의 치료성공 수준'의 차이는 개인적 만족도에서 사회적 인정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대인관계의 다양성에 따라 범위가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모비교로 새로운 이미지를 고려함'의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밝히는 개념은 '외모차별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다음 자료수집을 위한 후속 대상자는 '외모차별의 경험'을 가진 대상자였다. 이러한 목적적인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으로 자료수집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념간의 윤곽과 자료포화도를 높일 수 있었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월 8일에서

2014년 3월 20일까지이었으며, 인터뷰 장소는 본 연구자의 연구실, 커피숍, 식당 등 연구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달리하였다. 첫 회 면담시간은 60분~80분 정도로 소요되었고, 후속면담은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진행하여 참여자별 평균 2회 실시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으며, 내용의 의미가 모호한 것은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여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개념을 분류하여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숙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비교하고, 현재 상황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개념을 비교하여 질문하는 플립플롭 기법과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개념을 정교화할 수 있었다. 또한 근거이론적 접근에서의 개념과 범주화에 따른 구조분석과 과정분석으로 핵심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은 원자료에서 최종 범주에 이르기까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o. 1041386-20140311-HR-006-03).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며,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를 중도 포기하는 대상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의 연구참여의 자율성을 명시하였고 참여자의 진술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한다는 점을 공지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실제 인터뷰 과정은 대상자 중심으로 미리 면담시간을 정하고 시작하였고, 연구종료 후 인터뷰 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연구결과의 타당성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Morse,

Hutchinson과 Penrod (1998)가 제시한 이론형성을 위한 지속적 확인방법에 따라 본 연구자는 연구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연구과정의 반응성, 방법론적 일관성, 자료분석 과정의 측면에서의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과정의 반응성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의학적 치료를 통한 외모관리의 선입견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를 접어두고 객관적 시각으로 연구자료에서 추출되는 모든 변수의 인과관계를 숙고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의 지속적 비교와 개념화, 이론적 표본추출, 관련문헌에서의 이론적 민감성 유지로 연구주체에 몰입하면서 자료분석에 전념하였다. 방법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여대생의 의로기술을 이용한 외모관리의 경험은 무엇인가?'의 연구질문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상황의 참여자 진술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 둔 근거이론적 접근으로 이론적 포화를 이룰 때까지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의 지속적 비교에 따른 순환적 코딩으로 새로운 개념이 추출되면, 다시 원 자료와 비교하고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적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념의 속성과 차원, 범주의 추상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범주간의 관계를 논리적 일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로,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여대생의 외모관리 경험과정은 '사회적 기회요인 발굴하기'로 통합되었다.

7. 연구자의 준비와 연구결과의 검토

본 연구자는 자신의 선행연구인 여대생의 체중조절을 통한 외모관리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로 여대생의 외모관리 행태의 특성을 고찰을 한 바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외모관리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여대생의 외모관리의 측면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이론적 민감도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자의 심미적 치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심미적 치료 그 자체만 중립적으로 바라보았다. 이후 연구질문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개방적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후속질문을 적용하여 연구의 유연성을 기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순환적인 반추과정으로 지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숙고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주제에 대해 간호학과 교수 1인과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확인 및 수정하는 과정으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령 22-23세의 여대생으로, 과제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체중이었다. 심미적 치료경험은 치아교정 2명, 시력교정 3명, 성형수술 3명, 피부미용 1명이 해당되었다. 주거형태는 자가 5명, 기숙사 1명, 자취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과제중 여대생 1인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Table 1).

2. 개방코딩

본 연구의 개방코딩에서 24개의 개념, 12개의 하위범주와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2).

1) 주변인으로 자리함

이는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외모와 관련되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 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일상적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피로감', '일상적 외모관리의 불편감', '매사에

소극적이 됨', '외모스트레스를 받음'이었다. 이를 추상화하여 '일상적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피로감', '일상적 외모관리의 불편감'은 '비효율적인 일상생활 수행'로, '매사에 소극적이 됨', '외모스트레스를 받음'은 '소원한 대인관계'으로 명명하였고, 두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주변인으로 자리함'으로 범주화하였다.

2) 외모비교로 새로운 이미지를 고려함

이는 참여자들이 다른 여대생들보다 시각적인 위축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된 개념은 '가족의 외모비교', '친구의 비하적 외모발언', '자신의 이미지변화를 고려함', '자기만족을 우선시함'이었다. 이를 추상화하여 '가족의 외모비교', '친구의 비하적 외모발언'은 '콤플렉스가 됨'으로, '자신의 이미지변화를 고려함', '자기만족을 우선시함'은 '새로운 자신을 기대함'으로 명명하였고, 두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외모비교로 새로운 이미지를 고려함'으로 범주화하였다.

3) 적극적 사회생활을 위해 심미적 치료를 선택함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처한 외모관련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도출된 개념은 '자신의 극적변화를 갈망함', '외모가치를 우선시함', '성공적인 치료사례를 접함', '외모개선의 효과적 측면을 고려함'이었다. 이를 추상화하여 '자신의 극적변화를 갈망함', '외모가치를 우선시함'은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갈망함'으로, '성공적인 치료사례를 접함', '외모개선의 효과적 측면을 고려함'은 '심미적 치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명명하였다. 두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적극적 사회생활을 위해 심미적 치료를 선택함'으로 범주화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NO	Weight	Hight	BMI	Age	Medical treatment				living condition
					LASIK	plastic operation	orthodontic brackets	skin laser treatment	
P1	57	155	23.73	23	●			●	house
P2	65	173	21.72	22			●		self-boarding
P3	57	167	20.44	22		●			dormitory
P4	48	160	18.75	22		●			house
P5	47	155	19.56	22	●				house
P6	58	166	21.05	22		●			house
P7	51	153	21.79	23	●		●		house

Table 2. Categorized Concepts Analyzed by Grounded Theory

Paradigm	Categories (6)	Subcategories (12)	Concepts (24)
Casual Condition	Seating as a marginal person	Performing a life ineffectively	Having fatigue by using computer and smart phone Having discomforts with appearance management daily
		Having estranged relationship	Becoming passive personality Being stressed in external feature
Context	Considering new images by compared appearance	Having inferiority complex	Having compared with their family Abased appearance from friends
		Expecting new their own	Considering changed image of their own Having a preference for self satisfaction
Phenomenon	Selecting esthetic treatment for positive social life	Desiring positive social life	Desiring for dramatic exchanges in themselves Having a priority of appearance in life
		Expecting esthetic treatment	Meeting the success cases Considering effectiveness of changed appearance
Intervening Condition	Searching variety of medical information	Depending on personal mediated information	Introduced by relatives in hospital Introduced by undergone friends
		Preferring professional medical system	Considering profession of medical personnel Highly regarded the frequency of operation
Action/ Interactions	Choosing the optimal solution process	Planning for individual suited operation	Taking medical examination for adaptedness Considering undergone person's opinions.
		Arranging for economic plan	Making money with part time job Received from their family
Consequences	Performing main activity in interrelation	Acquired self-confidence	Having positive minds Receiving praise for advanced feature
		Having leadership in anything	Having good images with positive self management Changed to positive personality with expression

4) 다양한 의료정보를 탐색함
 이는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심미적 치료를 위해 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출된 개념은 '병원에 종사하는 지인의 알선', '수술경험자로부터 소개받음', '의료진의 전문성을 고려함',

'병원의 수술 빈도를 고려함'이었다. 이를 추상화하여 '병원에 종사하는 지인의 알선', '수술경험자로부터 소개받음'은 '인적 정보에 의존함'으로, '의료진의 전문성을 고려함', '병원의 수술 빈도를 고려함'은 '전문의료체계를 선호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두 하위범주를 통

함하여 '다양한 의료정보를 탐색함'으로 범주화하였다.

5) 최적의 외모개선 방안을 선택함

이는 참여자들이 실제로 외모개선을 실행함을 의미하였고, 개별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치료과정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기술이었다. 도출된 개념은 '사전검사로 수술적합도를 인식함', '전문가에게 일임함', '수술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함', '가족의 지원으로 감당함'이었다. 이를 추상화하여 '사전검사로 수술적합도를 인식함', '전문가에게 일임함'은 '개별적 맞춤수술을 계획함'으로, '수술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함', '가족의 지원으로 감당함'은 '경제적 대책을 마련함'으로 명명하였다. 두 하위범주는 '최적의 외모개선 방안을 선택함'으로 범주화하였다.

6) 대인관계를 주도적으로 감당함

이는 참여자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변화된 이미지와 함께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얻게 됨을 의미하였다. 도출된 개념은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됨', '외모칭찬을 수용함', '세련된 이미지로 인식됨', '의사표현이 활발해짐'이었다. 이를 추상화하여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됨', '외모칭찬을 수용함'은 '자신감으로 충전됨'으로, '세련된 이미지로 인식됨', '의사표현이 활발해짐'은 '리더역할을 담당함'으로 명명하였다. 두 하위범주는 '대인관계를 주도적으로 감당함'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3. 축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간의 관계를 구조와 과정의 축코딩으로 분석하였다.

1) 구조분석

(1) 인과적 조건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주변인으로 자리함'이었다. 이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으로 일생생활에서 항상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대생들은 학업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늘 피로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안구건조증 등 눈과 관련된 건강문제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소원한 대인관계로 주변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으로 참여자들은 '외모의 사회성을 수용함'의 현상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2) 맥락적 조건

본 연구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전후관계인 맥락적 조건은 '외모비교로 새로운 이미지를 고려함'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마주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자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새로운 자신을 기대하는 의미로 참여자들은 외모의 사회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3) 현상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외모관리 경험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현상은 '적극적 사회생활을 위해 심미적 치료를 선택함'이었다. 이는 여대생들이 주변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모비교로 새로운 이미지를 고려하는 상황적 맥락에서 현대의술의 기대감과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갈망하게 되는 것으로 외모의 사회성을 스스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4) 중재적 조건

본 연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다양한 의료정보를 탐색함'이었다. 이는 지인으로부터의 인적체계에서의 정보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의료적 정보로 최적의 외모개선 방법을 선택하는 데 영향 요인이 되었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본 연구의 현상을 조절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최적의 외모개선 방안을 선택함'이었다. 이는 개별적 맞춤 수술을 계획함과 경제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외모개선을 탄력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이 되고 있었다.

(6) 결과

본 연구의 중심현상에 대해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외모관리 경험과정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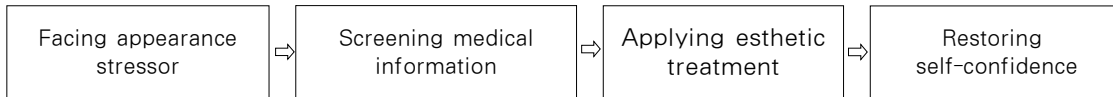


Figure 1. The process of 'Discovering factors of social opportunities'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자신감으로 충전됨과 리더역할을 담당하는 '대인관계를 주도적으로 감당함'이었다.

2) 과정분석

본 연구에서 시간흐름에 따른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외모관리 경험과정은 '외모스트레스 직시기', '의료정보 선별기', '심미적 치료 적용기', '자신감 회복기'의 4단계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1) 외모스트레스 직시기

자신의 외모스트레스 직시기의 단계에서 여대생들은 자신이 처한 내적 외적 환경에서의 자신의 외모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면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외면적 상황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견해 또는 차별감을 인식하면서, 복합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비효율적인 일상생활 수행', '소원한 대인관계'를 나타냈다.

저는 학과에서 누가 계속 못생겼다고 해서요. 남학생이 매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애가 계속 대놓고 하루에 한번씩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못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눈이 작아 보이고, 코랑, 입은 다 큰데, 눈만 작다고 생각했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맞다고 생각했어요. 삼촌도 언니가 더 예쁘니까, 저랑 언니를 좀 차별하셨어요. (P4)

피부 레이저 치료는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때, 피부에 주근깨가 너무 많은 게, 사진 찍으면 다보였어요. 얼룩덜룩하게... 썬카 같은 거 찍었을 때... 어른들은 귀엽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거예요. (P1)

(2) 의료정보 선별기

의료정보 선별기의 단계에서 여대생들은 과도한 변형을 초래하는 수술보다는 세련된 이미지의 변화를 바라고 있었고, 심미적 치료에서 이전부터 성행하던 성형수술보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라식이나 라섹의 레이저 시력교정술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정보에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단계에서는 여대생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인적 정보에 의존함'이나 '전문의료체계를 선호함'의 경향으로 '다양한 의료정보를 탐색함'의 과정을 나타내었다.

눈 하는 것은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한달이상 계속 라식, 라섹을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어떻다는 등, 수술과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았어요. 라식한 사람들 카페, 20대 여성의 카페 이런 곳에 정보가 많더라고요. 광고는 안보구요... 병원은 검색 안했어요...정보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어요. 수술하고 생활법이 도움이 되었어요. 세수를 못하면 어떻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 등.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볶음밥 같은 사례. (P7)

엄마직장 동료분 동생이 한 병원이 괜찮다고 해서 소개 받았어요. 서울, 부산에 다 있는 병원이고, 제일 크고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사람이 많아서, 아침에 일찍 안갔으면 검사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P5)

(3) 심미적 치료 적용기

실제로 여대생들이 심미적 치료를 받는 과정은 단순히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병원치료의 과정도 거쳤다. 특히, 치아교정의 경우는 최소한 2년이 걸리는 과정이라 인내심이 요구되는 과정이었으며, 시

력교정술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이 단계에서 여대생들은 '개별적 맞춤형 수술을 계획함'과 치료비용에 대해서 '경제적 대책을 마련함'의 과정이 적용되었고, 이는 '최적의 외모개선 방안을 선택함'로 심미적 치료방법을 적용하는 단계였다.

처음에는요, 그냥 병원에 가서 견적만 뽑아보러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깐, 제 이가 너무 못생긴거예요. 정상적인 이랑 비교했을 때 배열이 너무 엉망인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하게 되었어요. 5주마다 검진 가는데, 치과에서 제 사진을 띄워줘요. 그럼 정말 변한게 보여요.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하고나서 좋아진 거 같아요. 웃을 때 치아배열이 가지런해져서 보기 좋은 거 같아요(P2).

라섹은 천천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구요. 실상 해보니까 한달동안은 잘 보이지 않아, 이거 왜 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달 후 서서히 시력을 찾았어요.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처음에는 버스 표지판이 잘 안보였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한달반 정도 햇빛보는 거 피하고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P7)

(4) 자신감 회복기

심미적 치료 후 최소한 6개월 이후부터 여대생들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되어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성형에만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나타내었다. 물론 외모의 변화 과정이 단순히 화장을 할 수도 있지만, 여대생들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심미적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여대생들은 새로워진 모습에서 심리적 건강을 되찾았고, 현재 상태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자신의 새로워진 모습에 적응해 가면서, 외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어, 외모는 타인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깨닫는다. 이러한 자신감 회복과정은 외모의 변화로 대인관계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으며, 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기회를 넓혀가는 밑 걸음이 되었다.

수술 전, 안경을 안 썼을 때는 가까이도 표정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제가 무표정일 때가 많았거든요. 상대방 표정이 잘 안보이니까 반응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잘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성격도 밝아졌어요.(P5)

라섹수술하고 나서 요즘 계속 보면서 전 제 얼굴이 좋거든요 외모는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면도 무시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니 어떻게 생겼다. 너 코 할 생각 없나?'이렇게 말해도 하면 그전에는 할까 말까 그랬는데, 제 얼굴에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눈 좋은데, 내 코 만족한다. 이러면서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P7)

4. 핵심범주: '사회적 기회요인 발굴하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미적 치료인 치아교정, 시력교정, 쌍꺼풀 성형수술, 레이저 피부미용술을 받은 여대생이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적극적인 외모변화를 통해 대학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적응해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여대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대학시절에 새로운 대인관계가 증가됨에 따라 외모자신감이 결여된 여대생들은 그렇지 못한 여대생들보다 더욱 위축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외모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대생의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외모개선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인관계를 확대하는 '사회적 기회요인 발굴하기'였다. 대학 입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대생들은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움을 인식하였다. 여대생들은 외모스트레스가 학업의 방해요인이며, 일상생활에서 의욕저하로 자신감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해왔었다. 이전에는 외모스트레스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외모비교는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자신의 시선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집단에서 더 나아보이고 싶어 자신의 외모를 재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현대의학의 심미적 치료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대생들의 행동 내면에는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인식한 것도 요인이 되어, 어느 시기보다 자기 자신의 외적가치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의 폭이 고교시절보다 확장되고, 수업참여 및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모에 대해 타인과 비교하는 기회가 많아져 의식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막상 심미적 치료를 받으려고 결심하니,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은 친구나 친척들의 성공적인 수술사례였으며, 부정적인 측면은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부작용의 사례, 수술 중 사망 또는 잘못된 수술로 자살 등의 충격적인 보도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대생들은 아름다운 외모의 갈망이 수술의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례보다는 긍정적인 수술성공에 기울이게 되었다. 즉, 부정적인 사례는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래서 부작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의학적 치료를 결심한다. 이러한 여대생들의 인식은 자신의 이전 외모차별의 경험에서 벗어나고자 함과, 청년기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여 자존감 있는 성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게 여대생들이 단순한 외모관리가 아닌 수술 또는 치료를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강구함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였다. 여대생들의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딸의 외모가 자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딸의 아름다운 외모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대변한다는 인식으로 딸의 성장에 따라 외모관리를 위한 심미적 치료를 주도적으로 권유하며, 기꺼이 치료병원을 물색하고 비용을 감당하였다.

이와 같이 여대생들의 심미적 치료 경험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자신감의 회복과정이었다. 이전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가꾸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심미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에 여대생들은 그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함을 내비추었다. 따라서 외모관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었고, 변화된 모습에 적응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총체적으로 심미적 치료의 외모관리는 대인관계에서 많은 이득이 있으며, 사회적 기회요인을 증가시키는 성인기의 준비과정으로, 여대생들에게 외모관리에 대한 당위성을 갖게 한 과정이었다.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가는 4단계의 하위과정으로 드러났다. 각 단계는 ‘외모스트레스 직시기’, ‘의료정보 선별기’, ‘심미적 치료방법 적용기’와 ‘자신감 회복기’ 과정을 나타냈으며, 각 단계별 특성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심미적 치료 경험의 변화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Figure 1). 여대생들은 의욕과 자존감이 저하된 원인인 자신의 외모와 마주하였다. 그 후 심미적 치료에 대한 광고나 연예인의 세련된 모습을 기대하며, 병원상담을 받았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이름난 병원이 아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병원의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의 받아야 할 치료를 선별하여 긍정적인 신념으로 치료를 받았다. 치료과정과 회복과정이 치료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여대생들은 얼마간의 고통을 이기고 난 후의 새로운 외모에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이전보다 나은 모습 또는 거추장스러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에 신세계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외모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치료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다.

여대생들은 외모의 변화에서 심리적 자신감이 솟아 난다고 진술했으며, 심미적 치료로 자신의 콤플렉스 극복은 물론 사회적 기회도 적극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취업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외모관리 경험의 전 과정은 사회적 기회요인 발굴하기로 통합할 수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심미적 치료를 적용해 외모관리를 하는 전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사회적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의 심미적 치료는 본래의 외모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위축상태에

서 벗어나 사회적 기회요인으로의 매개체 역할을 의미하였다. 여대생들은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면서, 외모차별로 위축되었던 자아를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성인이라는 생각에 새롭게 사회에 나아가고자 한다. 이에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외모변화를 갈망하게 되어 의료정보를 접하게 된다. 즉, 주변에서 심미적 치료를 받은 친구나 친척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변인 또는 어머니의 권유와 도움으로 심미적 치료를 감행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부작용의 위험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더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면서 치료 후에 자신감과 우호적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사회적 기회요인이 확대된 자아에 대해 만족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대생들은 2, 3학년생으로 이들은 학업의 1차적 목표를 취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좋은 기관에서 높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대생은 참여 학습의 비율이 높은 교과과정으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학습하고 자기노출에 따른 스트레스를 안고 있어,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응능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Lee & Park, 2013), 취업과 관련하여 외모차별의 관행은 여성 직종에서 더 심한 것으로(Lim, 2003), 보고된 바 있었다. 즉, 여대생들이 국내 취업을 위해서 전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외모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여대생들이 외모와 취업이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여대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아 의욕상실로 이어져 건강문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Hwang, 2012; Son, Choi, & Song, 2010)는 보고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의 여대생들은 스스로 인지하는 외모 만족도보다는 대인관계 역량이 도움을 받기 위해 외부상황에서 초래되는 외모스트레스에 중점을 두어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진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었다.

외모관리 방법 중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다이어트 경험 여대생의 경우는 건강상태의 위협과 함께 외모자신감이 저하된 것이 동기요인이 되어 건강다이어트를 통해 자기조절력을 향상시켰으나(Kim, 2012), 본 연구

주제인 심미적 치료의 외모관리는 신체적 건강보다는 사회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대인관계의 이득이 가장 큰 동기요인이 되었던 것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여대생들은 외모와 관련된 의료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심미적 치료의 의료정보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자신이 직접 조사하기도 하였다. 심미적 치료 중 시력교정술은 외모 개선과 더불어 시력향상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Cho et al. (2004)의 연구에서 라식수술의 대상자는 주로 젊은 여성이 많았으며, 수술 전 주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다가 필요시에만 안경을 착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콘택트렌즈를 사용했던 자 1인,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모두 착용하지 않았던 경우 2인으로 나타나 젊은 여성에 해당되는 여대생들은 모두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시력이 극도로 저하된 것이 아니라면, 시력기능보다는 외모 관리에 더 치중한다는 것을 드러내어, 라식이나 라섹의 시력교정술이 고도시력저하의 기능적 치료보다는 젊은 여성의 시력개선을 위한 심미적 치료로 적용되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병원들은 광고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인의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후 수술 치료를 적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치료경험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심미적 치료 적용과정에서, 여대생들은 현실적인 회복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즉, 치료를 받자마자 기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기를 거쳐 부작용 없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원하는 종류의 심미적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수술 전·중·후 기간에 관심을 두고, 심미적 치료로 실제 일상생활에서 활동 변화를 받아들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미용성형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외모관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Tae, 2011).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여대생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심미적 치료가 다양했기 때문에, 치료 후 고통을 견디면서 시력이 회복되거나 피부상태가

개선되었다. 치아교정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진으로 점차 개선되는 외모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모든 심미적 치료가 치료의 종류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어느 정도의 회복기를 거치는 인쇄심이 요구되는 과정이었다. 여대생들은 사회적 이득을 위해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감내한 것이었다. 이는 Lee와 Park (2011)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의 능력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이라는 보고와 유사한 맥락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삶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렇듯 ‘사회적 기회요인 발굴하기’는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외모관리 경험과정에서 드러난 상호작용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범주로 확인되었다. 핵심범주의 속성은 외모관리의 ‘적극성’과 ‘수용성’이었다. 즉, 심미적 치료의 외모관리 경험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외모스트레스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와 심미적 치료에 대한 수용성에 따라 ‘사회적 기회요인 발굴하기’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이 심미적 치료를 적용한 외모관리 경험과정에 대해 근거이론적 접근으로 서술하고 탐구하여 참여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실체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의 여대생들은 외모로 인해 일상생활의 의욕이 저하를 경험하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 외모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균형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후 주변상황에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심미적 치료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이 확립됨에 따라 자신감을 회복하여 적극적인 사회인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에서 여대생의 심미적 치료의 외모관리 경험과정은 ‘사회적 기회요인 발굴하기’로 통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심미적 치료방법을 적용한 외모관리 경험과정의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형성함으로써 성인초기

여대생의 외모관리가 사회심리적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총체적인 건강증진을 구성하는 외모관리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대사회의 여대생에게 유발될 수 있는 대인관계와 심미적 치료의 외모관리 관점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였다. 비록 심미적 치료가 단면적으로 대인관계의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대인관계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내면적 개발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개발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더불어 현대의학의 심미적 치료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quino, M. S., Haddad, A., & Ferreira, L. M. (2013).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ho underwent minimally invasive cosmetic procedures. *Aesthetic Plastic Surgery, 37*(3), 497-503. <http://dx.doi.org/10.1007/s00266-012-9992-0>
- Cho, W., Kang, H., Kim, J., Chung, Y., Lee, J., & Lee, J. (2004). Assessing the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tisfaction after receiving laser in situ keratomileusis(LASIK).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7*(2), 111-119.
- Hwang, R. I. (2012).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15-226.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15>
- Kim, H. J. (2012).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62-70.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62>

- Kim, H. J., & Lee, M. H. (2012).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4(2), 33-47.
- Kim, J. S. (2012). The proces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in healthy die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3), 244-255.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2013). Statistics for survey on plastic surgeries at different countries. New York: Author
- Lee, S. H., & Kim, S. J. (2012).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453-463.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453>
- Lee, E. K., & Park, J. A. (2013).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93-303.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 Lee, S. H., & Park, K. S. (2011).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b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5), 187-199.
- Lim, I. S. (2003). Women's employment and appearance-discriminatory selection.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19(1), 113-144.
- Lim, I. S. (2004). The experience and intention of cosmetic surgery in the looks-discriminatory society.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20(1), 95-122.
- Litner, J. A., Rotenberg, B. W., Dennis, M., Adanson, P. A. (2008). Impact of cosmetic facial surgery on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quality of life. *Archives of Facial Plastic Surgery*, 10(2), 79-83. <http://dx.doi.org/10.1001/archfaci.10.2.79>
- Morse, J. M., Hutchinson, S. A., Penrod, J. (1998). From theory to practice: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guides from qualitatively derived theor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8(3), 329-340.
- Park, E. J., & Chung, M. S. (2013).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influences of appearance on body dissatisfaction and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1(3), 361-375. <http://dx.doi.org/10.7741/rjcc.2013.21.3.361>
- Park, Y. R., & Son, Y. J. (2009).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to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16(3), 353-361.
- Son, Y. J., Choi, E. Y., Song, Y. A.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18(4), 345-351.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 Tae, H. W. (2011). Changing perceptions of cosmetic surgery arising from changes in knowledge acquisition. *Gender and Culture*, 4(1), 89-129.
- Yoo, T. S. (2013). Directional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related to the appearance of body imag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7(3), 260-269. <http://dx.doi.org/10.5850/JKSCT.2013.37.3.260>

Experiences in Appearance Management With Esthetic Treatment of Female College Students

Kim, Jeong S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scribe the process of appearance management with esthetic treatment and for development of a substantive theory that explains lifestyle in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seven students who had undergone a surgical procedure with LASEK, cosmetic, and wearing orthodontic bracke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in Strauss and Corbin (1998). **Results:** The core category, 'discovering factors of social opportunities' incorpo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all categories and explained the process. These processe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four stages: 'facing appearance stress', 'screening medical information', 'applying esthetic treatment', and 'restoring self-confiden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an understanding and profound insight on the issue of psycho-social health promotion in young female.

Key words : Health promotion, Young adult, Female, Qualitative research